

청년 문학인재 발굴하고 양성하는 장

연변작가협회 제 4 회 '청년문학상' 시상식 연길서 중편소설 <깊은 밤을 날아서>(주련화) 대상 수상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선전부와 연변작가협회에서 주최한 제 4회 연변작가협회 '청년문학상' 시상식 및 '문학의 꿈 펼치고 중화의 혼 수립' 문학양성 및 탐방활동이 10월 11일 연길에서 있었다. 행사는 제 4회 연변작가협회 청년문학상 시상식,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제로 한 물입식 교양활동 및 문학탐방 등 세 부분으로 나눠 펼쳐지면서 연변작가협회의 약 100명의 회원들과 청년 문학애호자들

이 참가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김기덕이 행사에 참가했다. 주당위 선전부와 연변작가협회는 2018년부터 문학인재의 단계별 양성을 착실히 추진하고 문학신인을 양성, 격려하며 청년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창작에 나서도록 이끌기 위해 연변작가협회 '청년문학상'을 주최해왔다. 이번 제 4회 '청년문학상'은 지난 3월부터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했는데 전국 각지의 청년작가, 문

학애호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3개월에 걸쳐 중단편소설, 시, 수필, 아동문학, 문학평론, 번역 등을 포함한 306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는데 장르와 품질에서 모두 '청년문학상' 사상 최고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의 결과 주련화의 중편소설 <깊은 밤을 날아서>가 대상을 수상했다. 류선희의 단편소설 <더 세계 안아줘> 등 3편이 금상을 수상하고 문설근의 중편소설 <집> 등 6편이 은상을 수상했으며 리예숙의 시 <십자로 모퉁이(외 9수)> 등 8편이 동상을, 립현호의 단편소설 <리기적인 하루> 등 9편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청년문학상' 평의활동은 연변작가협회가 광범한 작가들을 이끌어

습근평문화사상을 참답게 학습, 실천하고 20차 당대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견지하며 정품 창작 의식을 확고히 다지고 '문학을 교정으로', '육재 도서관' 등 중대 소재 중점작품 전단지 등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과정에 거둔 성과를 충분히 보여줬다. 시상식에 이어 '당의 해산 연변 비추네' -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전문 주제 음악 당학습이 펼쳐졌다. 이어 오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연변박물관을 참관한 후 화흥시 동성진 공동촌에 찾아가 문학탐방 활동을 펼쳤다. / 안성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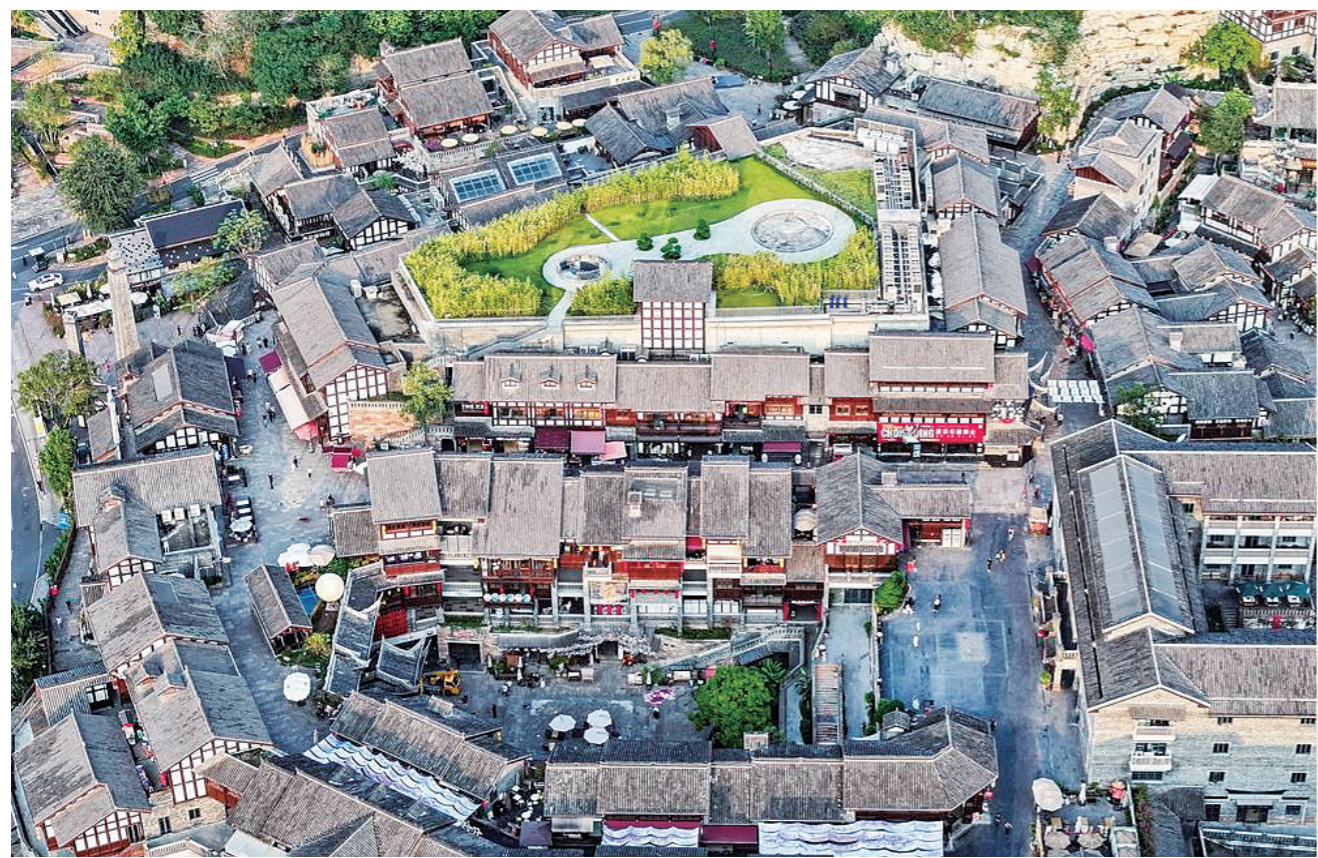
'홍기문화전시관' 제 1 자동차의 영광의 역사 재현



▲ 외국 관광객들이 홍기차 앞에서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다. / 최승호기자 찍음

장춘의 '홍기(红旗)문화전시관'은 장춘 제 1 자동차공업 문화관광코스중의 하나로 관광객들은 예약을 통해 옛 자동차공장과 현재 번영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공장 등을 방문할 수 있다. 제 1 자동차의 71년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전시장에는 1958년에 제조해낸 첫 국산 승용차 동풍-CA71이 전시되어 있다. 동풍 CA71의 탄생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자동차를 만들 수 없었던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70여년 동안 우리 나라 자동차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2023년까지 우리 나라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량은 사상 처음으로 3,000만대를 넘어섰다. / 중국국제방송넷

제 1 자동차공장 공기기술부 조립공예부 총감독 동위에 따르면 현재 제 1 자동차공장은 54초에 차량 한대를 조립한다. 그는 "우리 공장을 유연화, 지능화, 자동화 및 정보화를 통합하고 수동 참여 없이 많은 단계에서 전체 로봇 생산을 실현한다."며 "또한 분당 25미터미터의 강우량에서 운전이 영향을 받지 않는 테스트와 같이 차량의 품질 테스트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새 중국 자동차산업 문화의 계승자로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새 중국 자동차산업의 역사와 민족 브랜드 문화를 이해하고 역사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발전 과정을 느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 중국국제방송넷



전통문화 살아 숨쉬는 중경 자기구 고진

가릉강변에 위치한 중경 자기구(磁器口) 고진은 북송 시대에 건설이 시작되었다. 최근 수년간 현지는 문화·관광 융합과 도시 재생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천년 역사의 옛 마을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9일 드론으로 내려다본 자기구 고진 풍경. / 신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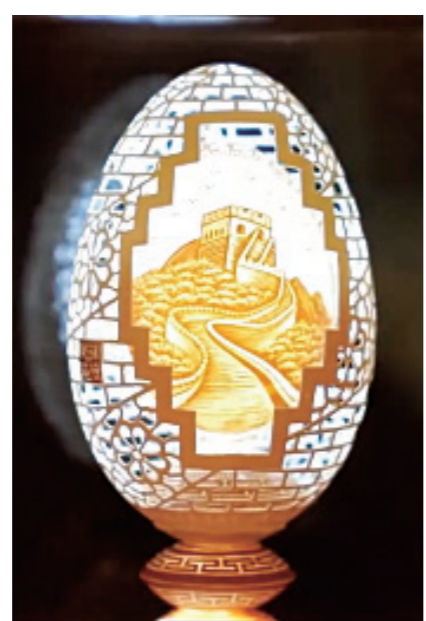
천진 고문화거리 '진문고리'에 가보다



천진 고문화거리는 '천진의 고향'을 뜻하며 '진문고리(津门故里)'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곳은 천진에서 가장 먼저 비즈니스와 무역이 이루어진 곳이자 천진의 문화와 민속의 중심지의 하나로 되어 있다. 천진시 남개구에 위치한 이 거리에는 로자호(老字号, 오랜 역사를 지닌 유명 브랜드)가 많다. 시대의 변천을 거치며 이 거리는 전통적인 풍습의 중심지에서 현대적인 관광 및 상업 구역으로 발전했다. 네개의 골목길이 나란히 있는 이 거리는 현재 687미터 길이에 1만 3,000평방미터에 달하는 개방형 상업 보행거리로 등장했다. 청나라의 건축양식을 갖춘 이 거리는 수백년을 내려오며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이곳에서는 구불리만두(狗不理包子)와 달콤한 디저트를 비롯한 현지의 별미를 모두 맛볼 수 있다. 또한 다채로운 점포 조각상, 서예 작품, 양류청(楊柳青) 년화 등 다양한 특산품을 구매하거나 워크숍을 찾아 물입식 공예 제작을 체험할 수도 있다. 고품질의 상품, 합리적인 가격, 혁신적인 제품으로 고객들은 멀리서도 이 고문화거리에 몰려들고 있다. 상업 보행거리이자 인기 관광 명소인 천진 고문화거리는 방문객들에게 '가장 천진적이며 가장 민속적인 체험'을 제공한다. / 인민넷

닭알 우에 수놓은 웅장한 만리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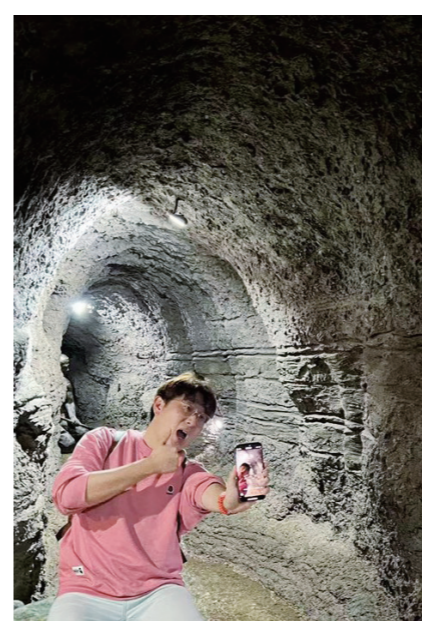
올해 새 중국 창건 75주년을 맞으며 일전 하북성 탁주시 성급 무형문화유산 닭알 공예 대표 전승인 포덕영이 정성을 몰부은 섬세한 기예를 선보였다. 그는 만리장성을 주제로 한 닭알 공예 작품을 완성해 조국의 75돐 생일에 독특하고 소중한 선물을 바쳤다. 포덕영은 투각, 양각, 조합, 중첩 4가지 기법을 활용해 거위알과 닭알 껍데기에 만리장성의 웅장함을 생생하게 표현해냈다. 작은 닭알 껍데기 표면에 우뚝 솟은 첩첩한 산봉우리를 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만리장성은 중화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고 푸른 나무와 산봉우리는 생기를 내뿜는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의미하며 하늘공중을 날아오는 비둘기는 평화의 소중함과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념원을 전하고 있다. / 신화넷



▲ 만리장성 주제의 닭알 공예 작품

'지하수 만리장성' 신강의 칸얼징

'지하수 만리장성', '지하 운하'로 불리는 신강지역 특유의 지하 관계 시설 '칸얼징(坎儿井, 신강 지방의 수원에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특수한 구조의 지하 수도)'은 만리장성, 경향(북경-항주)대운하와 함께 중국 고대의 3대 대역사로 꼽힌다. '칸얼징'은 지난 9월에 2024년(11차) 세계관개시설물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신강지역에는 1,700개가 넘는 '칸얼징'이 있는데 이중 1,200여개가 톨판에 있으며 총 연장길이가 5,272킬로미터에 달한다. 천산의 눈녹이물이 지하수로 따라 톨판에 끊임없이 양분을 공급하면서 이 땅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 인민넷



▲ 칸얼징에서 인증샷을 찍고 있는 관광객



문화유산 서장 구계왕국 유적

서장 알리자다현에 위치한 구계(古格)왕국 유적은 산세를 따라 건설되었는데 건물 440여채, 동굴 870여개, 보루 58개, 불탑 28기, 지하터널 2개 등으로 구성되었다. 상대적 높이 차이는 175미터, 부지면적은 18만평방미터로 전국 최초의 주요 문화유산 보호 기관이다. 웅장한 기세와 완전한 구조를 갖추고 많은 유물을 가지고 있는 구계왕국 유적은 서장의 역사와 고대 건축 연구에 중요한 실물 자료를 제공한다. / 중국국제방송넷

고궁박물관 유가문화 특별전시회 개최



북경 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되는 '대도지행(大道之行)-유가(儒家)문화 특별전시회'가 10월 1일부터 대중에게 개방되어 고궁박물관 소장품을 비롯한 국내외 고고학 박물관 약 30곳의 문화유산 380점(세트)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는 고고학 실증, 문헌 기록, 문화재 소장품 등을 통해 유가문화의 역사적 형성의 맥락을 짚어보고 유가 사상의 핵심 명명 리념을 살펴봄으로써 전세계에 미친 그 영향을 소개한다. / 인민넷